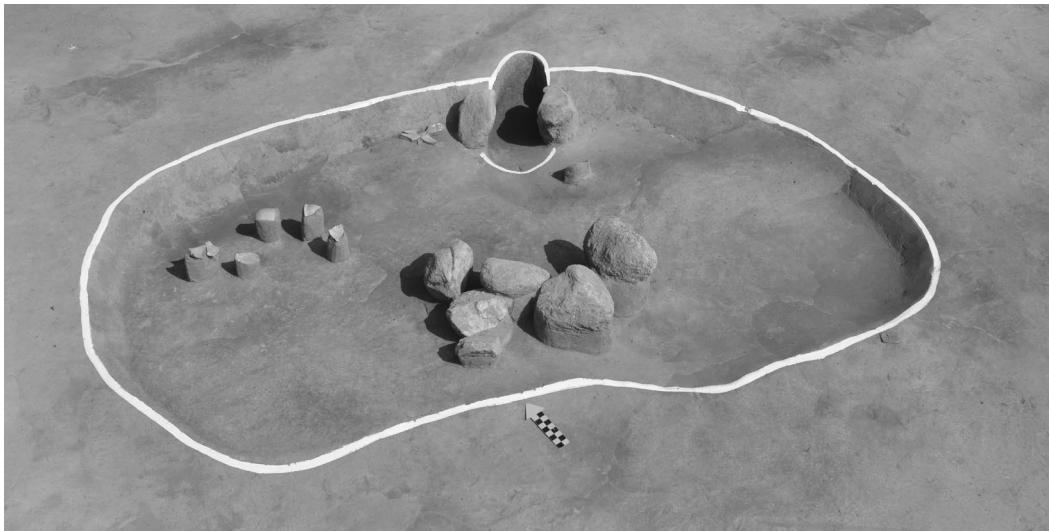


45건 74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종류와 기형, 부장양상, 표면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 토광묘의 조성연대는 상한~13세기 후반, 하한~14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토광묘는 16세기 전·후한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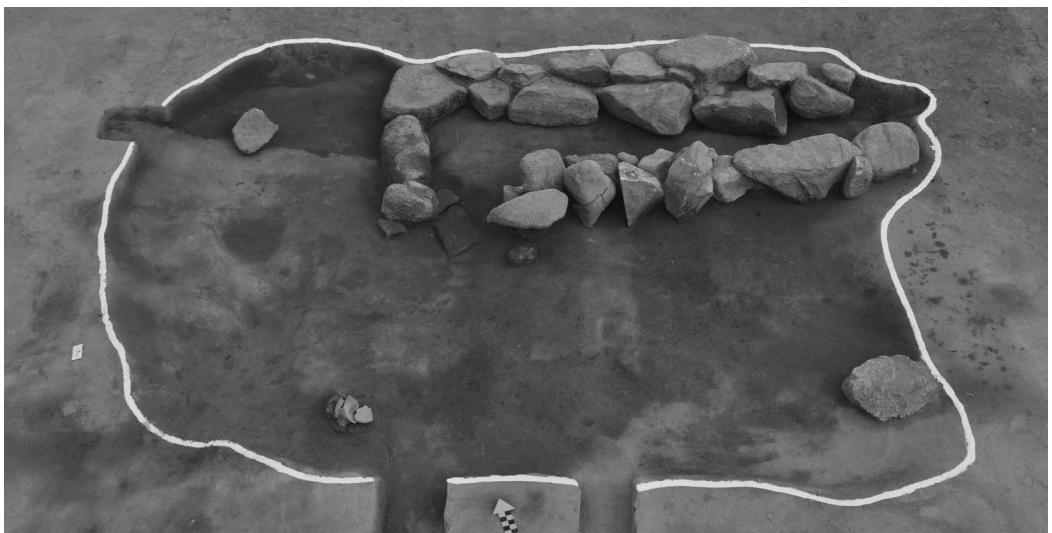
지금까지 울진 덕천리 고려·조선시대 분묘군 유적에서 발굴조사 된 20기의 토광묘와 45건 74점의 출토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및 유구와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유구와 유물은 고려 및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빈약한 울진 지역에서 비록 소규모로 행해진 발굴조사이지만, 향후 울진 지역의 고려·조선시대 토광묘의 증가된 자료와 함께 당시 고려·조선시대 분묘연구 및 사회·문화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절 기타 유적



<그림 142> 울진 덕천리 유적

1. 덕천리 유적⁶⁷⁶



<그림 143> 울진 덕천리 유적

조선시대는 대부분 생활과 관련한 유구들로 주거지·온돌유구·소성유구·저장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거지는 자연폐기된 것으로, 내부시설물로는 부뚜막과 부뚜막과 연결된 벽구 및 연통시설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 안에서는 취사와 관련하여 아궁이 주변으로 다량의 목탄이 확인된다. 유물은 대부분 자기편,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단기간 사용되다가 자연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유구는 크기가 대부분 소형이며 산발적으로 확인되거나 수혈군과 연접하거나 중복된 상황이 확인될 뿐, 그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온돌유구 또한 최근 조사 예가 많아 유효한 자료로 판단된다.

저장공은 조사구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깊이는 118cm로 깊은 편이다. 내부에서 자기편 이외 패각(굴껍질)이 출토되었다. 굴은 특이하게 하절기 울진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보아 여름철 한시적으로 식용하기 위해서 저장한 시설로 판단된다.

조선시대~근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6기, 건물지 부속시설 2기, 수혈 15기, 토광묘 8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방형 2기, 원형 1기, 타원형 3기이며, 덕천리 마을의 북쪽 가장자리와 마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내부 시설과 주변에 토광묘가 확인되지 않는 양상으로 묘막과는 관련이 없는 덕천리 마을 형성기에 임시로 거주하던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분청사기

676. (재)성립문화재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2012,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II』

대접 3점, 분청사기 접시 5점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의 형태로 볼 때 조선시대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편년된다.

조선시대~근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6기, 건물지 부속시설 2기, 수혈 15기, 토광묘 8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방형 2기, 원형 1기, 타원형 3기이며, 덕천리 마을의 북쪽 가장자리와 마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내부 시설과 주변에 토광묘가 확인되지 않는 양상으로 묘막과는 관련이 없는 덕천리 마을 형성기에 임시로 거주하던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분청사기 대접 3점, 분청사기 접시 5점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의 형태로 볼 때 조선시대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편년된다.

조선시대~근대에 해당하는 15기의 수혈 중 1호와 12호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유구의 바닥에 15cm 정도 목탄과 그 위에 10~15cm 정도의 할석이 화기에 노출된 형태로 확인되어 돌굿유구(삼가마) 또는 어떤 물건을 찌기 위한 용도의 가마로 추정된다. 유물은 분청사기가 출토되어 수혈주거지와 비슷한 조선시대 초기에서 중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4> 울진 월송 포진성 범위

2. 월송 포진성⁶⁷⁷

월송 포진성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1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성지(城址) 북쪽 약 750m 거리에는 울진군 평해읍 북쪽 오곡리와 기성면 황보리 유역에서 발원한 황보천이 동해로 유입되며, 남쪽으로는 울진군 온정면 백암산(1,003m) 남쪽에 있는 삼승령(747m) 등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평해 남대천이 약 500m 떨어져서 동해로 흘러든다. 조사된 유구는 월송 포진성의 남쪽 성벽과 기와무지 1기, 우물 1기이며, 유물은 자기 73점, 기와 104점, 청동가락지 1점, 토기 3점 등 총 181점 출토되었다.



<그림 145> 울진 월송 포진성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과 문지, 성 내부의 우물 등이 잘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문헌기록 및 조선 후기의 풍경화, 지도 등과도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벽은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동쪽 일부구간이 유실되었으나 지적도상의 지변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볼 때 지적도 작성당시 성벽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도를 참고하여 성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성벽의 둘레는 328.8m정도이다. 그리고 문헌기록과 둘레를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성벽의 높이는 3.2~4.7m 정도이다. 성벽의 너비은 6m 내외이다.

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수키와는 미구가

677. 삼한문화재연구원, 2014,『울진 월송 포진성』; 울진군·(재)성립문화재연구원, 2013,『울진 월성포진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있는 것과 없는 것, 무문양인 것과 외면에 종선문, 삼각집선문, 복합문, 어골문 등의 문양이 타날된 것 등이 출토되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연철흔, 합철흔, 와도흔, 단부내면조정흔 등의 제작흔이 남아있다. 기와는 대부분 단면이 두껍고 타날판의 길이가 장판에 해당하며, 하단 내면에 물손질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전기 이후로 편년된다.



<그림 146> 울진 월송 포진성 내 월송정

자기류는 분청사기 1점을 제외하면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분천사기의 경우 굽이 낮은 죽절굽이고, 백자는 높은다리굽, 낮은다리굽, 죽절굽, 나팔굽, 안굽, 평굽 등이 있고, 일부 굽 내면과 내저면에 ‘포상(浦上)’, ‘육(六)’ 등의 묵서명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자기는 대부분 편으로 남아있어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분청사기 저부편 1점(15세기)을 제외하면 18세기 후반의 유물로 판단된다.

3. 외선미리 건축유적⁶⁷⁸

울진 외선미리 유적이 위치한 이 일대가 동편이 곡간으로 연결되어 트여있을 뿐, 나머지 삼면은 험준한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동-서상으로 관통하여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산지들의 지세도 대략 60°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고

678.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외선미리 유적』

있는 곳은 금장산에서 동쪽으로 길게 형성된 구지골의 상류이며, 이 일대는 곡간에서 운반된 토사와 산사면에서 유실된 토사가 퇴적된 소규모 곡간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조사결과 울진 외선미리유적에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7동과 중정, 담장지, 석축, 출입시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청자접시, 분청접시, 청동숟가락과 젓가락, 각장 암·수키와 등 376점이다.

발굴된 외선미리 건물지는 옛 평해군에서 서부내륙지역간의 교통로상에 설치되었던 당시 지방행정시설 기능과 산간 요충지에 공무 및 일반 여행자의 교통편의 기능이 복합된 독특한 반관반민의 행정교통 건축으로 추정된다. 출토 명문와 중 “호원적원”은 초창 원명으로, 당시원은 여말선초에 복구된 뒤 개명한 원명으로 추정된다. 입지는 양양·봉화에서 험한 주령을 넘어 속식할 하루 도보거리인 교통로변 산록이다. 뒤로는 산록이, 앞으로는 계류가 흐르는 곡간 경사지에 두 개의 단으로 나누어 터를 닦았다. 이런 입지는 조선조 문헌 및 혜음원지·조령원지와 일치한다. 윗단에 중심건물, 아래단에 부속건물을 철저히 위계·서열에 따라 배열했다. 형태적으로 외부로는 웅장·통일적, 내부적으로는 폐쇄·인위적이다. 몸채의 안대와 좌향은 지세축과 동일한 남향이다. 이런 지세 및 배치구성에서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건물들의 중첩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일체를 꾀하는 시각구조이다. 전반적으로 대칭·규범·통일성의 건축유형을 기본으로 한 궁궐·관아·서원·향교건축과 일맥상통한다.

건물의 배치구성은 종으로 강한 중심축을 설정하고, 기능에 따른 영역성 및 위계적 규범을 준수한 건물배치, 기하학적인 대칭구조에 의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한 건축유형이다. 남쪽에서부터 강한 중심선축을 따라 행랑채(관리·다용도 공간)-익랑채(숙식 공간)-몸채(의식·행정업무 공간) 순으로 배열되었다. 이런 건물의 배치 및 공간구성은 일차적으로 왕 또는 지방관의 행정시설 기능과 공무 및 일반 여행자의 교통편의 기능이 영역·건물별로 철저히 분리해 위계·서열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적으로 각 영역내 건물과 이에 종속된 중정이 이용자의 신분·품계·성별·노소·인축 간을 유교적 사회규범에 준거한 서열에 따라 채와 실을 구분해 이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적의 외부공간과 동선체계는 전체적인 통일성이 강조된 배치 및 평면만큼이나 철저히 위계와 서열에 따라 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선은 효율적인 접근성이나 배열보다는 철저히 기능상의 위계 및 유교적 규범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된 경향이 짙다. 하부 기초시설은 전반적으로 고려~조선초의 고급 건축에 사용된 축조수법이다. 기단 및 초석은 위계가 가장 높은 몸채 것이 가장 높고 크다. 몸채 동·서 익현의 ‘ㄱ’자형 구들 고래는 고려 말 난방방식, 고래 구조와 배열, 축조수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4. 표산 봉수대⁶⁷⁹

기성면 봉산 1리 277번지의 표산 봉수대의 위치는 ‘봉수’마을에서 보면 마을의 서편 해발 78.3m의 구릉 정상부이다. 표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북쪽으로 후리산 봉수대, 북쪽으로 사동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7> 울진 표산 봉수대

봉수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정상부를 평지작업하고, 타원형 토축 기단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방형의 석축연대를 만들었다.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인 기단부는 장축방향이 북동-남서로 능선부 방향과 거의 같다. 토석흔축 기단부의 크기는 하단부가 길이 29.6m, 너비 21.6m이고, 상단부가 길이 23.7m, 너비 16.8m이며, 높이 2m이다.

연대는 남쪽모서리가 둑근 방형이다. 연대의 벽석은 3~6단 잔존한다. 봉고가 심하여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통부 하부구조가 확인되며 그기서 다량의 재를 포함한 토층이 확인되어 연통시설이 있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의 아래에 남쪽모서리가 둑근 방형의 기단

679. 울진군·한빛문화재연구원, 2015, 『울진 표산 봉수대』

이 있다. 이 기단은 남서쪽을 제외하고 3면은 능선의 사면을 절토하여 2단으로 조성하였다. 최하단부를 방형으로 1단 쌓았으며, 그 위로 높이 60cm로 석축을 쌓아올렸다. 방형 기단부 중 양부에 평면 형태 방형으로 추정되는 연통을 설치하였는데, 상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호는 기단부의 하단을 따라 설치하였으며, 동쪽과 남서쪽 일부를 제외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호의 축조는 기단부의 하단 가장자리를 따라 석축을 돌렸으며, 이것은 짐승이나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고 상단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의 남서쪽에는 뚜껑돌이 있는 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호의 안쪽에 할석과 기반암편을 사용하여 배치한 시설과 연결되어 암거형을 이룬다.

오름 시설은 2곳에서 확인된다. 서쪽에 위치한 오름 시설은 경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외부에서 연대로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호에 조성된 토교와 연결되어 외부의 추정 창고터로 이어진다. 남쪽면에 위치한 오름 시설은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동쪽 경사면의 오름 시설로 판단된다.

생활 시설로 호의 남서쪽에서 초석 3기가 확인되었다. 초석 1기는 유실되었지만 초석간 거리와 평면형태로 보아 방형의 1칸 건물지가 있었다. 오름시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거화에 필요한 재료를 보관 하였던 창고로 추정된다. 추정 주거 건물지는 연대의 남쪽이자 2차 기단의 사면에 위치하며, 봉수군의 주거건물지로 추정된다.

표선 봉수대 발굴조사를 통해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문양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에 사용된 어골문, 격자문, 복합문과 조선시대 사용된 청해파문이 관찰된다. 자기류는 대부분 저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수직굽과 죽절굽으로 보아 15~16세기로 판단된다.

박광열